

20~30대주부 3명중 1명 “시댁과 갈등계속뎌 이혼”

서울 3백25명 조사...71%가 “갈등경험” 응답

주부 5명 가운데 1명이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으며, 3명 중 1명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혼할 뜻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.

여성지 월간 <리빙센스>가 최근 서울에 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의 주부 3백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1.4%가 시댁과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고, 30.4%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답했다.

시댁과의 갈등경험은 맞벌이 주부와 전업주부의 경우가 두드러지게 차이나 맞벌이 주부는 65.3%가 경험한데 비해 전업주부는 이보다 훨씬 높은 75.6%였다. 또 전업주부의 26.9%가 시댁과의 불화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었던 반면 맞벌이 주부는 6.2%만이 이혼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.

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보았다는 응답은 전업주부의 경우 66.6%인 데 비해 맞벌이 주부는 85.7%에 이르러 큰 차이를 보였다. 갈등의 유형은 집안풍속의 차이(28.5%), 동서와의 불화(19%), 육아방식의 차이(14.2%), 시누이와의 불화(12.6%), 종교 차이(6.3%), 혼수로 인한 불화(4.7%) 차례였다. 갈등이 빚어졌을 때 상의하는 상대는 친구(25.9%), 남편(24%), 친정어머니(20.3%), 친정 언니나 동생(11.2%), 직장 동료(5.5%) 차례로 꼽혔다.

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‘그냥 참고 양보하며 기다린다’(33.3%), ‘어른들과 상의하려는 자세를 갖고 대한다’(14.8%), ‘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’(14.8%), ‘친정 식구의 조언을 듣고 행동한다’(12.9%), ‘물질공세를 편다’(12.9%) 등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대응방식은 ‘체념해버린다’(35.4%), ‘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며 위안을 얻는다’(16.1%), ‘시댁의 사고방식에 나를 맞춘다’(16.1%) 등을 꼽았다.